

오차노미즈대학에서의 교환학생

동덕여자대학교

윤수경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의 교환학생이 끝나가다니, 아직 실감이 잘 나질 않습니다. 일본에 입국했던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학기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일본에 오기 전과 비교해서 꽤 성장한 기분이 듭니다.

일본어 전공자가 아니었기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본어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일본어로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일본어로 그룹 활동을 해보며 정말 귀중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는 일본어로 수업을 듣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외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여러 경험들이 쌓이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공 수업을 일본어로 듣는 것이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통론2 수업을 통해 일본의 경제를 일본인 교수님의 시점에서 설명을 듣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은 고용 시스템을 비롯하여 물가 상승률 또한 세계적인 흐름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현지에서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또한 가정경제학개론 수업을 통해 여성학과 경제학을 통합



적으로 사고해 보며, 일본의 가정 내 소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는 등의 과제를 통해 가계 경제에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의 축제에 참여하여 즐길 수 있었고, 도쿄대 축제에도 가보면서 한국의 대학교 축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2학기는 계절의 흐름이 잘 느껴지는 시기라서 푸르던 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낙엽이 떨어지는 일본의 풍경을 모두 보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할로윈, 크리스마스, 신년 등의 특별한 이벤트를 해외에서 보내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음에도 감사했습니다. 12월에는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 기운으로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거나,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기숙사 키친에서 쿠키를 굽고 파티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2개월가량의 남아있는 일본 생활을 더욱 소중히 감사하게 보낼 생각입니다. 학기 중에는 수업으로 인해 여행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사이 지역과 오키나와 등을 가볼 예정입니다. 우연히 생일 또한 일본에서 보내게 되어서 생일 당일에는 디즈니랜드를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추억을 가득 만들어서 행복한 유학 생활이었다고 나중에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보낸 반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반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에서의 수업은 대부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만들어 나가거나 그룹 활동을 위주였기 때문에, 더욱더 일본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 강의실을 못 찾아서 헤맬 때 교내의 오차노미즈 학생분들께 길을 몇 번이나 물었지만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수업의 같은 팀원 분들도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로 유학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오차노미즈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지도 교수님인 모리야마 선생님, 전공 수업을 듣게 해주신 마츠시타 선생님과 사이토 선생님, 항상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신 하기와라 선생님과 니시자카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